

대통령 탄핵 표결 최종 가결 및 향후 개혁과제

(2016. 8. 31)

상파울루사무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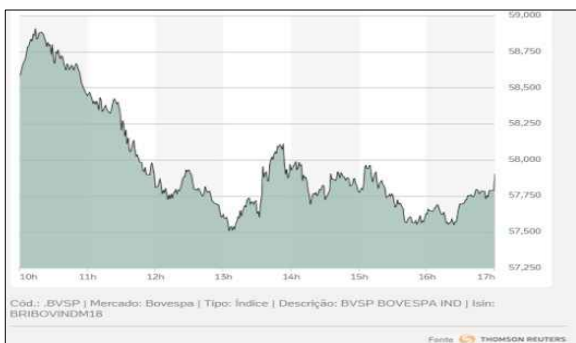
1 지우마 대통령 탄핵 최종 확정

- 브라질 현지 시각으로 8월 31일 오후, 당초 예상대로 지우마(Dilma) 대통령 탄핵안이 상원에서 최종 통과(찬성 61표, 반대 20표)
 - (탄핵 사유) 2014년 대선에서 연방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국영 은행의 자금을 사용해 재정회계법 위반
- 향후 페메루(Termer) 부통령이 공식적으로 2018년 말까지 남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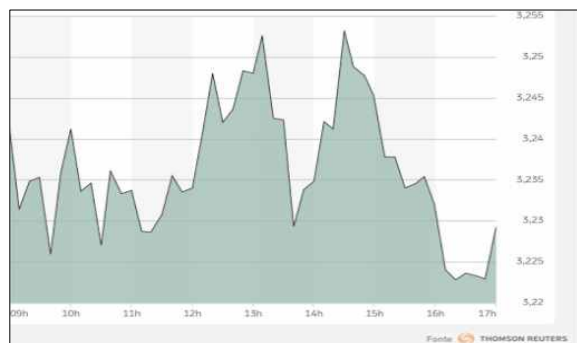
2 국내외 반응

- 탄핵 표결 직전까지 지우마 지지층의 간헐적인 반대시위에도 대내외 언론은 대체로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며 금융시장에서도 탄핵 이슈는 이미 선 반영되어 변동 폭은 미미
 - (주식시장) 실제로 Bovespa(브라질 주식시장)은 탄핵 이슈보다는 미국 유류 비축량 과다 소식에 민감히 반응하며 유가 약세전망으로 전일 대비 1.15% 하락한 57,901p기록
 - (환율) 박스권인 3.22 수준으로 전일대비 0.3% 하락

탄핵 당일 주가추이



탄핵 당일 헤알·달러 환율추이



3 향후 신정부의 핵심과제

1 과감한 경제개혁 등을 통한 경제안정 및 대외신뢰도 회복

-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제반 재정개혁 법안의 통과 여부가 관건

브라질 의회의 재정개혁 Agenda

- 고정세출 비중 축소 (PEC 87/15) ⇨ 상원 승인('16. 8월)
- 국가부채 재조정 ⇨ 하원 및 상원 투표 ('16년 12월)
- 재정지출을 직전년도의 물가상승률로 제한하는 방안 (PEC 241/16)
⇨ 하원 투표('16. 10월), 상원 투표 ('17년 1분기)
- 아웃소싱 범위 확대를 통해 세출 축소 (PLC30/15)
- 특채공무원 정원 축소 (공채인력의 10%) (PEC110/15)
- 연방 및 주정부 합산 국가총부채의 한도 도입 등

2 부정부패 척결 등을 통한 대국민 신뢰도 회복

- PT당과 만찬가지로 집권당(PMDB) 역시 부패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는 상황이어서 Temer 정권에 대한 낮은 지지도 회복이 선결 과제
- 올 6월 CNI-IBOPE 조사에 따르면 Temer 정권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13%, 반면 부정적은 39%로 국민지지도가 매우 낮은 편



4 향후 전망

- 성공적인 재정개혁 등을 통한 대외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 가장 중요하나 이는 2018년 대선 득표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향후 핵심 과제 달성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
- 앞으로 Temer 정권의 정책투명성, 국정수행능력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